

	<h1>보도자료</h1> <p>제공일 : 2024년 12월 20일</p> <p>사 진 : 포함 (1매)</p>	작성과	고흥군의회 의회사무과
		담당부서	과 장 : 정상태 팀 장 : 김도형 담당자 : 오대양
		연락처	061)830-6062 061)830-6064 061)830-6067

## 고흥군의회, 윤석열의 신속한 체포 및 탄핵 인용 촉구 결의문 발표

- 윤석열을 즉각 체포·구속하고, 헌법재판소는 윤석열의 탄핵 심판을 조속히 인용하라

고흥군의회(의장 류제동)는 지난 20일, 제3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류제동 의장을 비롯한 11명 전 의원이 '내란수괴 윤석열의 신속한 체포와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탄핵 인용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문은 헌법 제66조 제2항과 제69조에서 규정된 대통령의 '헌법 준수와 수호 의무'를 강조하며, 윤석열이 이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한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특히, 윤석열의 12.3 내란 사건과 그 이후 대국민 담화에서의 행태가 국민 상식과 법 감정을 완전히 벗어난 극단적이고 위험한 행위였다고 지적했다.

이에 고흥군의회는 공조수사본부에 윤석열을 즉각 체포하고 구속하여, 자료 접근 및 증거 인멸을 막고, 공작을 미연에 방지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의 내란 및 헌정 파괴 행위에 대해 빠르게 탄핵 심판을 인용하여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회복하고, 국정외 공백과 정치적 불안을 최소화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탄핵 절차를 방해하려는 정치적 세력에 대해 경고하며, "사리사욕을 위해 탄핵 절차를 방해한다면 더 이상 보수세력이 아닌 반국가 세력으로 낙인찍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것"이라고 강력히 선언했다.

고흥군의회는 "전 국민이 텔레비전 생중계로 내란을 목도했으며, 이제 헌법재판소의 시간이 도래했다"며, 헌법 질서를 회복하고 대한민국을 정상화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의 발 빠른 대처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헌법 질서를 수호하고 국정외 공백을

최소화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마지막 관문이자 국민의 의무”라고 밝혔다.

결의문을 대표 발의한 류제동 의장은 “△윤석열의 체포 및 구속을 즉각 진행하고, △헌법재판소는 윤석열의 탄핵 심판을 조속히 인용하여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회복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고흥군의회는 이번 결의문을 통해 윤석열의 내란 및 헌정 파괴 행위에 대한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며, 대한민국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다짐했다.

첨부: 내란수괴 윤석열의 신속한 체포와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탄핵 인용 촉구 결의문  
전문 1부.

## 내란수괴 윤석열의 신속한 체포와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탄핵인용 촉구 결의

헌법은 제66조 제2항 및 제69조에서  
국가의 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이라는  
대통령의 막중한 지위를 감안하여,  
대통령의 ‘헌법 준수와 수호 의무’ 를 구체화하고 있다.  
헌법 정신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민 모두에 대한  
‘법치와 준법의 상징적 존재’ 이다.

그러나, 12.3 내란과 그 이후 대국민 담화에서  
보여준 윤석열의 행태는  
그가 국민들의 상식과 법 감정을 한참 벗어난  
극우 유튜브에 빠진 광인임을 증명하였다.  
국회와 언론에서 하나하나 드러나는  
윤석열의 내란 시나리오  
놀라움을 넘어 전 국민을 패닉에 빠트렸다.

천주교 사제들의 시국선언처럼

‘어째서 사람이 이 모양인지’ 통탄할 일이다.

공조수사본부는 윤석열을 즉각 체포하여

구속 수사하여야 한다.

무엇을 하든 상상을 뛰어넘는 윤석열을

지체없이 신병확보하여

자료 접근과 증거 인멸을 막고,

더 이상의 공작을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

공조수사본부는 국민들이 하루빨리

걱정없는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광인의 미친짓을 막고,

신속하고 과감하게 수사해 나가야 한다.

국회는 지난 12월 14일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의결하면서

헌법과 법률에 위배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재적의원 3분의 2를 넘는 찬성으로

윤석열의 탄핵과 파면에 대한 전 국민적 공감대가  
광범위하게 형성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이 자리를 빌려 전 세계에 성숙한 민주주의를 보여준  
국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전 국민이 텔레비전 생중계로 내란을 목도하였다.

국민의 힘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절차를  
더 이상 방해하지 말라.

자당의 사리사욕을 위해

탄핵 절차를 조금이라도 방해한다면

더 이상 보수세력이 아닌 반국가 세력으로 낙인찍혀  
역사의 뒤편길로 사라질 것이다.

이제 헌법재판소의 시간이 도래하였다.

손상된 헌법 질서를 회복하고

국정의 공백을 최소화하여

대한민국을 정상화할 마지막 관문이다.

발 빠른 대처로 하루라도 빨리 윤석열을 파면하여야 한다.

이에 고흥군의회는 헌법재판소에 대하여 피청구인  
윤석열의 내란으로 인한 헌정 파괴 행위로부터  
헌법 질서를 수호하고,  
국정 공백과 정치적 불안정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속한 탄핵 인용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공조수사본부는 윤석열을 즉각 체포·구속하여,  
신속하고 과감한 수사를 진행하라.

하나.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의 정상화와 헌정질서  
유지를 위해, 윤석열의 탄핵 심판을 조속히  
인용하라.

2024. 12. 20.

고흥군의회 의원 일동

